



레이아웃 중요성 부각시킨 실무지침서 기본이론과 응용방법 알기 쉽게 설명

— 「편집 레이아웃」 펴낸 금창연씨

이 책 그 사람

하나의 완제품으로서의 인쇄물을 만들어내기까지 요구되는 여러 조건 중에서 근래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레이아웃을 꼽을 수 있다.

종래 '글'에 밀려 그 보조작업 혹은 단순작업으로만 경시되어 왔던 레이아웃은 이제 총체적인 편집·기획에 있어 기초작업이자 마무리작업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최근 「편집 레이아웃 I」(정출판사)을 펴낸 금창연씨(41, 한국소비자보호원 출판과장)는, 요즘 출판물에 있어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무엇보다도 강조한다. “점차 읽는 인쇄물에서 보는 인쇄물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독자에게 전달코자 하는 메시지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시각적 효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감각에만 호소하는 장식으로서의 레이아웃은 경계해야겠죠.”

그는 이런 의미에서 레이아웃터를 “문자, 그림, 사진, 선, 색깔 등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로 정의한다.

그러나 20여년간 출판계에 몸담아오며 틈틈이 대학강단에서 잡지편집을 강의하기도 하는 그는, 제대로 된 교재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했다고 한다. 기존의 관련서적들은 너무 추상적인 원론강의에만 치중해있고, 막상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눈동냥, 귀동냥으로 얻은 경험에만 의존해 왔다는 것.

연필·자·트레이싱 페이퍼·계산기 등 레이아웃에 필요한 도구에서부터

문자·사진·그림 레이아웃, 인쇄원고 지정요령, 종이와 체본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기본이론과 응용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을 출판하게 된 동기도 바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 책자체가 레이아웃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표지에서부터 본문인쇄에까지 세심한 신경을 썼을 뿐만 아니라 인용자료도 모두 눈에 익숙한 국내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10명의 직원들과 함께 3종의 잡지를 월간, 반년간, 연간으로 만들어내면서 ‘까다로운 편집장’으로 불리고 있는 그는, 이른바 유능한 편집장의 조건으로 우선 야심과 편견없는 개방적 태도를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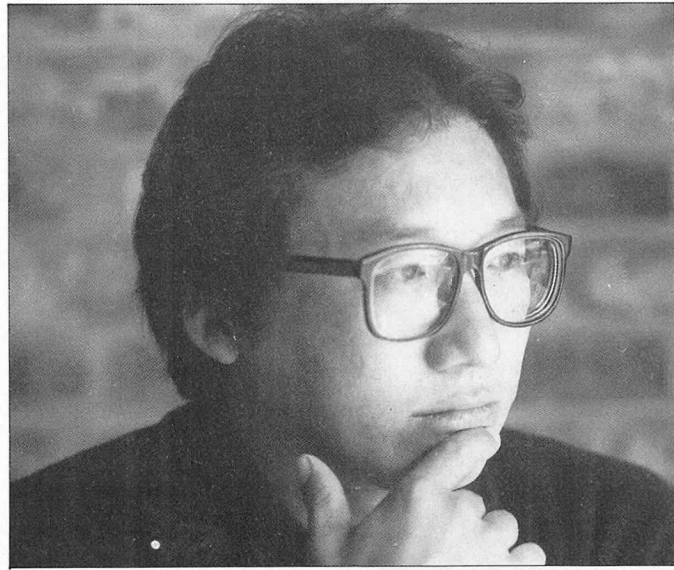
“아직도 글만 잘쓰면 된다는 구식 편집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편집 책임자는 모든 책제작 단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백과사전적 사람이어야 합니다.”

편집장 ‘개인’이 너무 드러난 고집스런 책은 결국 독자에게 읽히지 않는 책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최근 대학에서의 출판·인쇄 관련학과는 물론 편집학원 등이 증가, 차츰 그 전문성을 확보해가고 있어 뿌듯하다는 그는, 특히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 감각을 익히는 데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 본격적인 전문 레이아웃터가 많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책을 준비하면서 문장을 쉽게 풀어쓰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밝히는 그는, 끝이어서 실기·응용 중심의 제2편을 출간할 예정이다.

— 정소연 기자



한국산의 줄기와 갈래 밝힌 고문헌 조선 영조때 간행된 전통지리서

— 「산경표」 해설서 펴낸 박용수씨

이 책 그 사람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글을 쓰면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지녔던 박용수씨(34)는 그런 자신의 소망을

실현시켜나가기에 죽은 직업을 가진 보기 드문 행운을 지닌 사람이다. 비록 일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의 여행은 보통사람들보다 훨씬 잦다. 그가 찍은 사진도 이제 상품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 87년에는 「1986년 9월의 비망록」으로 KBS 방송문학상을 수상하고 등단, 소설가의 직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적어도 이 세가지 분야에서만큼은 프로의 범주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그가 지리학에서는 철저히 아마추어임을 강조하면서 내놓은 「산경표」(푸른산), 아직은 우리에게 낯선 그의 프로로서의 업적들보다 오히려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산경표」는 우리나라 산줄기와 갈래를 알기 쉽도록 만든 영조때의 지리서인데, 그가 이번에 펴낸 「산경표」는 1913년 조선광문회에서 간행한 것을 기초로 하고 그에 대한 해제를 덧붙인 것이다.

“등산이나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지리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기더군요. 워낙 무엇을 모으는 데는 이골이 난데다가 서지학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어서 몇가지 문헌들을 모을 수 있었지요. 조선광문회본 「산경표」도 이래서 가지게 된 것인데 가지고 있으니 궁금증도 생기고 해야 할 일도 눈에 보이는데,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 아예 제가 시작했죠.” 그러나 책을 내겠다고 마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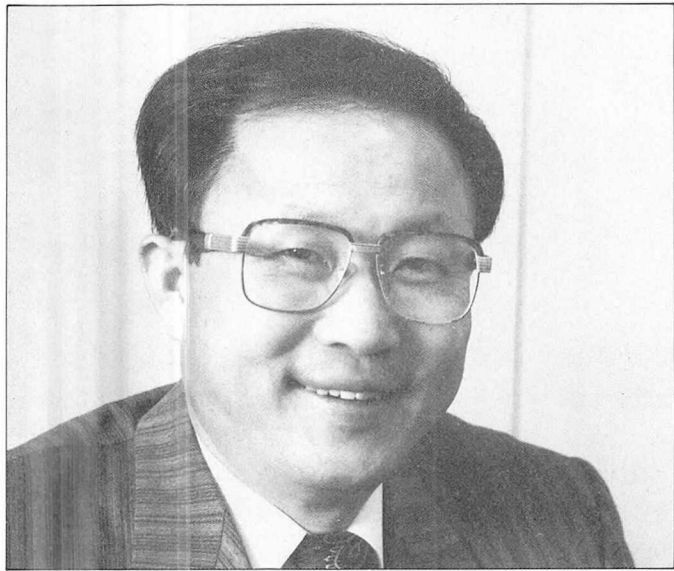
먹고 난 후 그는 5개월여를 각종 도서관을 전전하며 관련자료를 찾고 해묵은 문헌들의 행간을 더듬어야 했다. 애초부터 많지 않은 자료들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참고할 만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것이 그가 느낀 가장 큰 애로였다.

영조때의 지리서를 중점적으로 살펴가던 끝에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채로 있던 「산경표」의 저자와 간행시기를 밝힌 것이 그가 거둔 가장 큰 성과. 그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해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산경표」는 여암 신경준이 감수를 맡아 편찬한 「여진편람」의 일부였으며, 간행시기는 영조45년인 1769년이라고 한다.

우리의 산줄기를 15개로 나누어 산줄기를 중심으로 할 때는 幹으로, 강이름과 연관지어 때는 脈으로 나누어 표기하고 있는 「산경표」의 구성과 산줄기 명칭을 언뜻 훑어보기만 해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산맥지형도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산경표」는 우리의 전통적인 지리개념과 풍수지리사상이 담겨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리서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지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모두 일본인 학자 구토 분지로의 이론에 근거한 산맥지형도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창씨개명’된 채로 해방 45년을 맞고 있는 우리 산줄기 이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그는 이제 이 분야의 ‘프로’들이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를 진전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 박남정 기자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한 조세칼럼집 세금과 관련된 세상사 쉽게 풀어써

—「살아있는 세금」 펴낸 이상목씨



우루과이 라운드·페르시아만 사태 등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일련의 경제서적들이 서점가의 화제가 되고 있다. 개중에는 베스트셀러의 성가를 누리고 있는 것도 적지 않은데, 기업세무사의 눈에 비친 세금과 관련된 세상사를 담고 있는 조세칼럼집 「살아있는 세금」(조세정보사)이 그 대표적인 예.

지난달 이미 3판을 돌파해 독자들의 호응을 감지케 한 「높은 세금 낮은 목소리」의 저자이기도 한 이상목씨(48)의 이 책은 신문지상의 조세상담과 방송출연을 통해했던 글과 생각을 정리해 놓고 있는데, 납세자들과의 전화·서면상담에서 느낀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늘상 세금과 가깝게 접하면서도 그것에 관해 무관심한 국민들의 안내서가 되길 바랄 뿐”이라고 겸손해 하는 저자 이상목씨는, 경제기반이 튼튼한 이른바 경제적 기득권자들은 많은 정보를 통해 현행 조세제도를 심분 활용하는데 비해 일반 납세자들의 경우엔 제도의 부당여부에 대해서조차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한다.

예컨대, 5공 이후 특히 심각해진 세금과잉현상에 대해 그는 고소득자나 수익이 높은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들보다 상대적·절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은 우리나라 세정의 근본적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세정

담당관료들의 안전제일 보수주의의 또한 불합리한 제도의 답습원인임을 그는 지적한다.

“유다가 회계담당이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유다의 속성이 있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사실 혼탁한 세상살이에 젖어 마음이 흐려질때면 ‘세수’하는 심정으로 독서와 글쓰기를 합니다.”

경기도문인협회에 소속돼 바쁜 일과중에도 간간히 수필 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의 글재주는 선친의 대물림임에 틀림 없다고 말하는데, 50년전 동아일보 공모에서 항일정신이 배어있다는 이유로 심훈의 「상록수」에 밀려 낙선한 「青春의 砲臺」의 작가가 다름아닌 그의 선친인 이동우씨인 까닭에서란다.

얼마전 고이 간직해온 선친의 유고를 책으로 묶어내는 효도를 한 이상목씨는 “일종의 사회소설로 탄광촌의 노사분규를 다룬 작품”이라고 선친의 유일한 소설을 소개하면서, 당시에 노동3권과 항일투쟁을 주장하셨던 선친에 비하면 자신은 세상살이에 너무 타협적인 것 같아 송구스러워질때가 많다고.

민주적인 복지세정을 마련하고픈 의도에서 주도한 ‘조세대상’제가 예산부족으로 중단되었지만 반드시 재개될 것으로 믿는다는 이상목씨는 불만과 편벽이 없는 세계 실현에 자신의 노력이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기 쉬우니 낮은 목소리라도 뭉치고 반복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다.

— 최태원 기자



0~8세 어린이를 둔 부모의 지침서 오랜 상담 통해 이론과 실제 접목

—「우리아이 왜 이럴까」 펴낸 김경희 교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사려깊고 경험있는 부모들은 아마 ‘자식키우는

일’이라고 서슴없이 답할 것이다. 한 생명을 탄생시키고 제대로 된 인격의 소유자로 키워낸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임을 이들의 체험은 증명하고 있다.

‘하나 아이 어떡하면 더 잘 키울 것인가’에 고민의 초점이 맞춰진 요즘 부모들에게, ‘아이들이란 낳아놓으면 저절로 자란다’란 옛말은 무책임하게 들린다.

그렇다고 변화무쌍하게 나타나는 아이들의 반응에 신묘하리만큼 효과를 보일 명백하고 공식화된 처방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조금 조금한 부모들이라면 내아이가 이웃집아이와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도 차분히 원인을 따져 대책을 찾기보다는 우선 ‘어찌하오리까’며 전문가찾기에 급급할 것이다.

이 때문에 가장 바쁜 사람 중의 하나가 아동심리학자 김경희교수(48·연세대 아동학과)이다. “애들 이끌고 부라부라 찾아오고 전화하기에 앞서 공리를 하세요. 물론 상담해오는 부모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노력하지는 않고 물어보기부터 해요. 이것은 주체적인 자녀양육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말해요. 저는 이렇게 말하지요. 제말은 참고사항일 뿐 해답은 아니라고.”

상담의 수많은 사례 중 연령별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 최근 책으로 펴낸 그는 이 책이 부모들에게 요긴한 응용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아이 왜 이럴까」

(동아출판사)는 0~8세 어린이들의 성격, 지능변화, 정서 및 표현등의 발달과정을 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관한 여러 유형과 그 원인 및 대책을 분석, 이론적인 면과 실제사례를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어린이양육의 방향을 바로잡는데 도움되도록 씌어졌다.

“한 인간을 독특한 개성을 가진 개인으로 만드는 일은 거의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이 부모공동의 책임이지 어떻게 어머니 혼자 책임이라고 제멋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만 심리학자인 제임장은 그렇습니다. 독일 유학시절 그곳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태도는 세계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어렵게 공부하여 조교수 자리에 오른 여성이 아이를 갖게 되자 아무 미련없이 직장을 그만두더군요. 물론 충분한 사회보장과 양육 후 원하지만 하면 다시 자기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겠지만서도.” 일과 자녀교육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네 기혼취업여성들에게 독일어머니들의 이상적인 선택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또한 현실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대리양육의 형태가 늘고 있고,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편모, 편부 혹은 양부모 아래서 자라는 어린이가 증가하고 있으며, 입양가정 또한 적잖는데, 원칙에 비취본다면 이들 가정의 어린이들은 모두 비정상적으로 자라질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양육의 방법과 대처방안도 다양해야 할 것이기에 김교수의 다음번 저술에 거는 기대는 꼭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다.

— 정혜옥 기자